



전북농협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NH농촌으로 적극'을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 공동으로 판매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촌정착 자금 농촌으로 적극

전북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출시 이벤트
60일동안 진행...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귀농·귀촌 활성화에 예비 농업인들의 농촌정착 자금마련을 돕기 위한 'NH농촌으로 적극'을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 공동으로 판매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NH농촌으로 적극'은 전국의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농축협 조합원이 아닌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매회 최소 1만원 이상, 매월 2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com) 홈페이지 가입(0.2%p)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농업 관련 교육(agriedu.net) 10시간 이상 수료(0.3%p) ▲지역농·축협 조합원 신

규가입(1.5%p)으로 만기 시 확인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각각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 출시 기념으로 창립 60주년의 의미를 담아 3월 17일부터 60일간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농·축협에서 신규 가입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5만원, 600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한 고객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꽃배달 서비스(모바일쿠폰)를 제공하며 올원뱅크 앱의 이벤트 응모템에서 응모할 수 있다.

금융상품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500만원 이상 특관예금 가입 가능

전북은행, '봄날썩 정기예금 특관'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날썩 정기예금 특관'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관예금은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고 기간은 1년제, 2년제로 금리는 최대 연1.45%(우대금리 연0.70% 포함)이다.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예금은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고시금리에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우대금리 연 0.20~연 0.30%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4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객님의 마음에



도 따스한 봄날이 오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기예금 특관을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100년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따스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신협, 코로나19 여파 고려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 올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가정에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은누리에 사랑의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

은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며 시작했다. 199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5 가정에 총 16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년 대비 지원 대상자 및 성금액을 두 배 가까이 증원했다. 전국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받아 선정된 64명

의 조합원에게 2억여원 이상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 캠페인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은 박혜선(가명) 할머니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단순히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 기반으로서 신협의 역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카카오페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캠페인도 운영 중이다. 온라인 모금플랫폼(카카오with같이가치)을 통해 취약가정을 위한 성금을 신협 임직원과 전 국민으로부터 모집하고, 모인 성금에 재단의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취약가정을 5년째 기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여성농업인이 나서

농진청, 생활개선회와 '넘어짐' 사고예방 실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해 (사)한국생활개선회(이하 생활개선회)와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농업인안전보건팀)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농작업 관련 손상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손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손상의 발생 비율을 남녀로 구분한 자료(2019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발생 비중(56.3%)이 남성농업인(27.3%)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근방관리 및 수시 관리 ▲안전작업수칙 준수 ▲작업과 착용 ▲다리 근력 강화 운동하기 등 세부실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작업현장에서 걸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농로 또는 통로에 일정한 너비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턱을 없애야 한다. 바닥이 패인 곳 또는 벌어진 틈을 수리하고, 항상 젖은 곳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작업장은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데, 작업도구는 정리해 사용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에는 물건을 정리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 중 호스 또는 줄 같은 작업도구는 사용 후 감아놓고, 바닥의 물기는 바로 없애준다.

또한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신고 낡은 신발은 바꿔 신는 것이 좋다. 신발 바닥에 묻은 진흙은 수시로 제거한다. 농작업 시에는 안전한 이동경로를 이용하며 시야를 가릴 정도로 과도한 물건을 운반하지 않는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말고 서두르거나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자에 앉아서 매일 10분씩 두 발이나 한 발 들기 운동을 하며 다리 근력을 키우는

것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농진청은 농업현장에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실천 사항이 정리된 표준교육자료, 영상자료 등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해 농업인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활개선회는 회원 대상 과제교육 시 넘어짐 사고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넘어짐 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위험성 인식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회중앙회 강현욱 회장은 "생활개선회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현대·기아차·우아한형제들
배송 로봇 개발 협력 추진

현대자동차·기아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이 배송 물류 로봇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8일 우아한형제들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 박정국 연구개발본부본부장, 우아한형제들 오세운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송 로봇 개발 및 물류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구조의 건물 이동을 최적화된 로봇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로봇 ▲아파트와 같은 다층 구조 건물에서 층간 이동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기학술분야 협력 강화

전기안전공사·대한전기학회
기술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기공학 분야 대표 학술단체인 (사)대한전기학회(회장 김철환)와 기술진흥과 산업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연구기술 개발과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기설비에 관한 공동 연구와 위탁 연구 협력 강화, ▲인력 상호 교류 및 교육 훈련 참가, ▲기술정보 교류, 연구·교육 시설 공동 활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지현 사장은 "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사의 실무적 경험과 학회의 연구기술 성과가 국내 전기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 안전에 새 기반을 닦아갈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업무협약식 후 기관대표 기념사진(사진 왼쪽부터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철환 대한전기학회 회장).

일자리 창출로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앞장

국민연금, 신한은행·동국대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동국대학교(총장 윤성희)와 함께 지난 19일 민·관·학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상호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여성·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컨설팅, 일자

리 연계 및 사업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사내벤처 1호 '디지털 리더십 연구소', 신한은행 '신한미래설계', 동국대학교 '창업원'이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의 '디지털 리더십 연구소'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설립한 제1호 사내 벤처팀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문명 해소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공단은 협약 이후 첫 사업으로 오는 4월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디지털 강사 교육(디지털 원더우먼 프로젝트)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디지털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으로, 동국대학교 창업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그 교육은 온·오프 병행으로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구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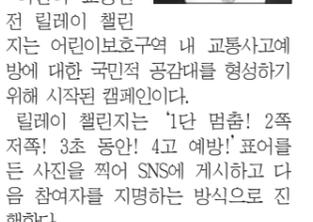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이 지난 18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릴레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사중 조합장은 고창수산업협동조합 김충 조합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합원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조합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흥덕농협 백영중 조합장을 지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혁신가 자체역량개발
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자체역량개발 교육비 지원을 시행한다.

청년혁신가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북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자체역량개발 지원사업은 집계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혁신가가 업무 관련 각종 교육(온·오프라인 및 자재시험 응시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국내 주요 관광 개발과 운영 업체를 초청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를 검토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호텔리조트 운송사, 건설사, 개발회사, 회계법인 등 관련 기업 24개사가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그린뉴딜·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 도로·신항만·국제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의 중요한 사업 축인 관광레저용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투자 검토 중인 사업, 투자 가능 지역 소개, 투자 혜택 및 인허가 통합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 19 백신접종 시작이후, 관광레저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한 만큼 새만금에도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청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2일부터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사유, 기타 의견 등을 핸드폰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올릴 수 있다.

새만금청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